

思想과 自然科學(三)

金容權

物質現象에 있어서는 그것은 彈性과 音響과 熱 等に 對하여 먼저 成立되고 다음은 光과 電氣에 對하여도 웬만큼은 可能하다고 보였지만 電磁氣理論의 完成以後에 電磁氣와 光에 對하여는 드디어 等閑視하게 된 것이다. 다시 他方으로 物化學現象에 있어서는 그 困難이 感知되어야 이에 變更되어야 單히 『에넬기』의 變化에 依하여 모든 現象을 說明하라하는 所謂 『에넬기』論이란 것이 생긴 것이다. 이 『에넬기』論을 專혀 主張한 『오스트 발트』氏는 이것을 物質現象만이 아니라 生物現象과 心理現象과 社會現象에까지 넓이 適用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實際로 力學的 機械論보다도 이것은 훨씬 廣範한 範圍로 適合함은 確實하지만 自然科學의에는 物質現象에 있어서에까지도 單히 『에넬기』의 變化만으로서는 現象의 完全한 記述이 不可能한 事를 明示한 것이었다. 이것은 얼마 아니 되어 關心이 薄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一般的으로 『에넬기』關係를 思考하는 바의 重要性은 반드시 이에 依하여 消滅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物理學 上의 理論이 思想 上에 影響을 미치는 事例는 이밖에도 現代에 있어서 相對性理論과 量子論 등이 잇는 것이다. 이때에 本質적으로 重要的 것은 相對性論에 對한 時間, 空間 概念의 物理的 意味와 量子論에 對한 經驗記述의 새로운 方法 등이지만 通俗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外觀에서 나타난 것이었었다. 前者에 關하여는 觀測立場의 相對性에 對立하여 觀測되는 法則의 絕對性이 成立된다함이 重要的 意味로써 여러 가지 境遇도 思考된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는 所謂 不確定性原理로 示現된 一對의 量이 相補性이란 것이 對象의 性質에 關하여의 觀點에 依한 相違可能性을 許容한 것이다. 그러나 一般으로는 이러한 境遇에도 그 사이에 여러 誤解가 混入하여 各各 觀點이 틀린 歸結을 導出치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觀測立場의 相對性이란 것을 곧 眞理의 相對性으로 結付하여 論及하기도 하며 對象의 不確定性이란 것으로부터 곧 그것의 偶然性을 導出하기도하고 또는 主觀이 客

觀으로 作用하는 줄로 생각도 하여 다시 極端으로 脫走하여 그 背後에 있는 自由意志의 可能性을 結論하기도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元來 理論의 本質에서 逸脫하여 함부루 하고 싶은대로 主張을 한 것으로서 만드시 其責을 自然科學으로 돌릴 수 없는 바는 勿論이다. 우리는 차라리 이러한 逸脫을 慎重히 警戒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그런 것을 除外한다 할지라도 相對性理論과 量子論이 思想的으로 보아 重要的 科學理論인바는 確實한 것이다.

生物現象에 關하여는 『따-원』의 進化論이 思想 上으로 큰 影響이 미치게 한 것은 勿論이다. 그것은 後代가지도 뿌리 깊어 殘留된 人間創造의 宗教的 傳說을 根抵로부터 打破한 것만큼 다시 自然科學에 對한 宗教家의 反抗까지도 反復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進化論의 다음으로 後續한 遺傳學 等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自然科學은 이 獨自의 길을 進行함에 따라 드디어 勝利를 示得한 것이다. 그것으로 말하드라도 今日에 오히려 生命의 問題만은 科學的으로 全혀 解決되지 못한 것이다. 일즉이 機械論이 生命現象에 對하여 無力한데가 是認되어 다시 物理學과 物化學에만 依存한 바 生理學이 同樣으로 生命의 本質로 登場하는 希望을 갖지 아니함이 豫想된 때에 生理學者는 古代의 生氣議을 科學的으로 復活하게하여 新生氣論이란 것을 形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境遇에 있어서 生命을 特質 붙이는 바 生氣라는 것은 依然히 未知의 그 무엇이라고 밖에 아니 되었다. 有名한 『도리시에』의 『엔데레-히』로 말하드래도 그것이 既知의 모든 概念과 論理的 連結을 缺한 限 이것을 決코 自然科學的 概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도리시네』以後 生物의 全體性이란 것이 그 特質로서 작구 論議되었지만 一組織에 對하여 그 全體性이 如何히하여 構成要素의 諸 性質로부터 結果가 되는지를 明示치 못하는 限, 이것을 어느 意味로 하든지 自然科學的 理論으로 見做할 수가 없는 것이다.